

A STUDY ON THE VOCABULARY EDUCATION APPLYING THE POLYSEMY

Na, Sahm 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ach vocabulary to foreign learners of Korean in an effective way, so that they can remember it for a long time and use it appropriately for communication as well as reading and writing. In other words it seeks the method by which students study vocabulary easily, interestingly, and effectively; and how they can remember over the long term the vocabulary that they've studied.

At first, it tried to search for a vocabulary instruction method within the theory of vocabulary teaching method where theoretical background is necessary for vocabulary learning. It also presented the necessity of vocabulary learning by the meaning relation on the basis of preceeding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vocabulary and the vocabulary teaching method.

Through the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 the most preferred vocabulary learning method for learners overall was learning vocabulary based on vocabulary features such as synonyms, antonyms, and polysemy that have semantic relationships between word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focused on the lexical relationship using polysemy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First, the concept of polysemy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nd then, through the analysis, different teaching methods were established for each type, and a vocabulary learning model using polysemy was presented.

Introduction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다의어를 이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어휘를 습득하게 하고 어휘 학습 후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 지도가 아주 중요하다. 어휘는 언어의 네 가지 기술(skill) 어디에나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는 교재의 앞부분에 언급되어 외국어 번역이나 교수자의 간단한 설명 등으로 학습되거나, 학생 스스로가 사전을 찾아 암기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면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은 거의 2000년대가 되어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더불어 어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어 어휘와 관련하여 한국어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의미적, 그리고 사회 언어학적으로 언어가 발달하여

이므로 이러한 특징에 따른 어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로 관계가 있는 어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학습 모형을 제시하여 교수한다면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어휘 학습을 하여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방법 중에서 다의어를 이용하여 교수함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쉽게 어휘를 익히고 활용하여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실제 다의어를 이용한 학습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한국어의 특징과 더불어 어휘 발달 측면을 고려하여 어휘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며 연구의 목적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어휘 교수법 이론에서의 어휘 지도와 어휘를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적 해법을 찾아본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어휘 학습 관련 선행연구를 점검해보고, 특히 한국어 어휘의 특성과 어휘 교육 방법에 대한 과거의 연구를 토대로 의미관계에 따른 어휘의 연관성에 의한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다의어에 따른 어휘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해서 그 특징과 학습모형을 제시해 본다. 여기에서는 다의어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해 유형에 따른 지도요령을 마련하고 다의어를 통한 어휘 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 요약을 하고, 몇 가지 제언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3. 선행연구

3.1 어휘 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선행연구

언어 교육은 처음에는 단어의 품사와 문법 공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문법은 물론 단어의 의미 이해도 언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나온 독서 중심 교수법은 수업의 목적을 언어 자료의 이해에 두었는데, 어휘를 세분화시켰으며, 책을 읽어가면서 새 단어가 나오면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짐작하게 함으로써 어휘력 향상을 도모했으며, 독서의 속도를 높여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교수법들은 학습자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문맥 속에서, 또는 사전을 찾아 그 뜻을 유추하여 이해하고 번역을 했다. 따라서 외국어를 듣고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수법이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직접교수법과 청각구두 교수법인데, 직접교수법에서는 읽기와 쓰기보다는 듣기와 말하기에 강조를 두어 외국어를 배울 때 보다 적극적이고 유의미하게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모방에 의한 발음 연습, 구어적인 문형 연습, 그리고 귀납에 의한 문법 학습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재의 각 단원의 첫 부분에는 대화문을 사용하여 귀납적으로 문맥을 통한 어휘 학습을 유도했다.

Henning(1973)과 Twaddell(1973)의 견해에 있어서처럼 언어교육에 있어서, 초기 학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형성하는 것은 어휘의 수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Henning은 어휘 지도가 초기 학습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언어 교육에 의사소통중심의 접근법이 등장하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어휘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Hammerly(1982)는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중급과 고급 단계로 가면서 어휘론, 의미론, 담화론의 양이 늘어나며 그 중에서도 어휘론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고 하여 어휘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휘를 교육할 때 학습자에게 어떤 원칙을 두고 그것에 맞게 지도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Nation(1990)의 낱말 목록 기준은 어휘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3.2 한국어 어휘 교육에 따른 선행연구

1990년대 초에 어휘 교수 방법과 지도, 나아가 평가에 이르는 다양한 지침을 제시하는 논문들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어 어휘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어휘 선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다. 임지룡(1992)은 빈도수가 높은 1,500어의 기초어휘를 선정하였으며, 박영순(1996)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1단계를 설정하여 기초어휘 300어를 우선 고려하였다. 최길시(1998)는 기초어휘 2,000어를 설정하여 한국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이어 2003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약 6,000개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만들었다.

의미관계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에 있어서 조현용(1999)은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어휘교육으로 첫째, 어휘의 구조에 따른 교육, 둘째, 의미 관계에 따른 교육, 셋째, 사회 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 등 세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어 어휘는 의미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의어, 동음어, 반의어, 다의어, 그리고 관용어가 많으므로 그 특징에 따라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욱(2001)은 어휘학습 전략과 어휘 교육의

방법으로 파생어 어휘교육 및 다의어 어휘 교육의 실제 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파생어와 다의어의 교육에 지침이 될 어휘 학습법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어휘 학습서를 만드는 모형을 제시하여 어휘 학습 방안을 구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강현화(2001)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다의어의 어휘 제시 방안을 연구했다. 박동호(2001)는 한국어 어휘 기술 방법론과 어휘교육의 일환으로 대상부류를 통한 다의어와 동의어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임승연(2002)은 실제 학습 자료의 모형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되 단순히 어휘 제시 방법으로 그치지 않고 다의어를 통해 어휘를 학습한 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제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II. 다의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어휘는 형태와 의미로 나누어지는데 형태적인 면에서보다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 어휘는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어휘가 많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다’, ‘나다’, ‘쓰다’, ‘따다’, ‘타다’, ‘피다’, ‘걷다’, ‘깎다’, ‘감다’, ‘짜다’ 등의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만 알고 있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배워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1. 다의어의 개념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단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의어는 한 단어의 의미가 기본 의미부터 변이 의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의어를 이루는 낱말들은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서 사전에 등재가 된다. 배(船), 배(梨), 배(腹) 등은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의미이면서 사전에 별개의 낱말로 수록이 되고 있다.

2. 다의어의 성립

다의성이란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의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거나 의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다의어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의어는 용법에 따라 각각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진다. 다의어를 가진 명사 ‘눈’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체 일부분 - 사람의 눈은 둘이다.

나. 안구 - 연희는 눈이 참 예쁘다.

다. 눈동자 - 한국 사람의 눈은 대부분 갈색이다.
라. 시력 - 철수는 눈이 나쁘다.
마. 식견 - 그는 여자를 보는 눈이 있다.
바. 눈길 - 그들은 서로 눈이 맞았다.
사. 마음 - 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 사람 - 여기는 눈이 너무 많으니 조심하자.
자. 배아 - 씨앗에서 눈을 떼어 내면, 싹이 트지 않는다.
차. 중심 -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인다.
카. 길이나 무게에 사용 - 눈금이 정확하지 못하다.
타. 코 - 그물 눈이 매우 잘다.
파. 행위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의어는 단어가 기초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일수록 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순(1994)은 다의어가 여러 가지 통로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기초적인 어휘들 대부분이 다의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영순은 머리, 코, 귀, 가슴, 눈, 손 등 모든 신체어와 여우, 호랑이 바람, 구름 등과 같은 일반어나 자연어가 다의어가 되며, 또 가다, 보다, 서다, 대다, 듣다, 들다, 죽다 등 기본 동작동사가 관용어를 만드는 다의어가 되고, 달다, 쓰다, 희미하다, 붉다, 푸르다, 검다, 부드럽다, 밝다 등과 같은 감각어와 같은 일반어도 다의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3. 다의어의 지도 요령

모든 어휘는 기본적으로 다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많은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 다의어를 이용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초급단계에서는 기본의미를 가진 다의어 교육을 하는 것이 좋으며 중급과 고급으로 갈수록 기본의미에서 중심의미로 그리고 주변의미의 다의어까지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다의어의 쓰임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한 단어의 다의적 의미의 항목들을 어떻게 확정짓고 어떤 의미부터 가르칠 것인가는 중요한 일이다. 강현화(2001)는 한단어의 다의 의미간의 경계는 무엇으로 확정지을까라는 전제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어휘의 이는 각 어휘의 격률, 의미, 연어 관계, 파생 여부, 피도·사동 가능 여부, 빈도 등의 기준으로 그 변별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동호(1998)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요소에 대한 사용자들의 어휘지식을 충실하게 표상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휘기술의 한 방법으로 대상부류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어휘 기술에서 많이 사용한 의미자질을 이용한 어휘 교육은 많은 용법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휘 기술 방법을 다음 예에서 보여 주고 있다.

1) 가. 철수가 기차를 탔다.

나. 연이 바람을 잘 탄다.

다. 철수가 어제 월급을 탔다.

라. 철수가 거문고를 잘 탄다.

마. 철수가 요즘 외로움을 탄다.

바. 철수는 더위를 잘 탄다.

사. 성공하려면 기회를 잘 타야 한다.

아. 철수는 위스키에 물을 탔다.

위 예에서처럼 동사 ‘타다’ 는 전혀 다른 성격의 명사들을 논항으로 취하지만 논항을 구체라는 의미자질로만 표시하면 용법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대상부류를 이용하면 이러한 여러 용법들을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가. <교통기관>-을/를 타다: 차를 타다

나. <기상: 바람>-을/를 타다: 바람을 타다

다. <돈>-을/를 타다: 월급을 타다

라. <현악기>-을/를 타다: 거문고를 타다

마. <감정>-을/를 타다: 외로움을 타다

바. <도로>-을/를 타다: 올림픽대로를 타다

사. <기상: 기온>-을/를 타다: 더위를 타다

아. <기회>-을/를 타다: 기회를 타다

자. <액체>-을/를 타다: 물을 타다

다의어를 가르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단계에 따라 의미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점차 주변의미로 확대해야지 단어마다 가지는 문맥적 변이 의미를 모두 인정하고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을 다루려면 하나의 단어에 무한한 중의성이 존재하는 단어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시한 ‘타다’ 라는 동사도 ‘바닷가에 갔다 왔더니 얼굴이 탔다’ 와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속이 탄다’ 에서처럼 자동사의 쓰임까지 구분하여 사용하면 변이 의미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4. 다의어 어휘 학습 모형

교 재: <한국어 읽기 - 상급>, 국제교육진흥원(2004)
제10과 “감동” 가운데
‘장애아에 따뜻한 관심, 택시 기사 고마워’(p.66)
학습단계: 한국어를 공부한 지 10개월 이상 된 고급 수준
학습목표: 읽기 자료를 통해 제시된 어휘들 사이의 다의관계를 익힌다.
학습내용: 본문을 읽고 본문에 나오는 어휘들 사이의 다의관계를 이해하고
연습활동을 통해 배운 어휘를 이용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도입 단계>

장애인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 주고 학습자들에게 연상 되는 단어를 말하도록 한다. 장애인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장애인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토론해 본다. 그리고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실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1일 체험과 같은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본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이 장애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제시 단계>

교사는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자에게 나누어 주고 읽게 한다.

<장애아에 따뜻한 관심, 택시 기사 고마워>

집에서 네 정거장 정도 떨어진 네거리에서 남편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 가게에서 한 일간신문을 정기구독 하는데 낮에 남편이 보고 퇴근할 때 집으로 가지고 오면 내가 읽곤 한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신문에 투고한 내

글이 실린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신문을 빨리 보고 싶어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못 참고, 집에 혼자 있기를 아주 싫어하는 1급 정신지체 장애아인 9살짜리 아이를 업고 겨우 어렵게 택시를 타고 가게에 갔다. 그런데 집에 오려고 택시를 타려는데 무슨 이유인지 빈차 한 대는 손을 저으며 지나쳤다.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다음 차를 기다렸다. 드디어 택시가 서고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말을 그냥 무심히 들으며 아이를 안고 택시에 탔다. 운전기사는 몸이 부자유스러운 아이를 보더니, 몇 살이냐, 데리고 다니기 힘들겠다, 말은 하느냐, 장애인 혜택은 있느냐, 이런 아이들이 머리는 좋더라 등 위로도 해 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집 앞에 도착해 택시요금으로 2천 원을 건넸다. 그런데 돈을 내게 도로 주며 그냥 두라는 것이었다. “개인택시도 아니면서 손해보면 어떻냐” 고 했더니, 자꾸 거절하며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라고 했다. 그래서 회사에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고 요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명함이 어디 있느냐” 며 회사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주면서 다음에 아이와 외출할 때 택시 잡기가 힘들면 꼭 연락하라고 말했다. 종락... ..

학습자는 본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와 다의어로 이루어진 어휘를 찾아본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 단어들을 주지하여 다시 읽으면서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다의어는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 본문을 여러 번 읽게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게 한다. 교사는 선정한 어휘를 읽어 주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 번 파악하게 한다. 다음 교사는 선정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예문을 이용하여 설명해 준다.

* 선정된 어휘: 정거장, 정기구독, 투고하다, 글이 실리다, 정신지체, 장애아, 손을 젖다, 부자유스럽다, 머리가 좋다, 위로, 손해, 거절, 명함

<다의어 연습 활동>

도입과 제시 단계에서 새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고 의미를 파악한 학습자는 연습 활동을 통해 연상 속에서 어휘의 형식과 의미의 통합을 이룬다. 먼저 교사는 학습자에게 본문에서 제시된 다의어를 찾아 그 쓰임을 설명해 준다. ‘손을 젖다’에서 ‘손’은 ‘예쁜 손, 손등, 손바닥’에서처럼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의 중심적 의미와 ‘손이 부족하다’, ‘이 일에서 손을 끊어라.’처럼 손에서 파생되어 확장되는 다른 의미로 바뀔 때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서명해 주고 이해시킨다. 또한 다의어의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자질을 이용해서 뿐만 아니라 대상부류 등을 사용하여 여러 용법들을 구별하면서 설명해 준다.

* 다의어

보다: 신문을 보다, 아이를 보다, 손을 보다....

손 : 손을 젖다, 손을 벌리다, 손이 크다....

타다: 택시를 타다, 속이 타다, 녹차를 타다....

머리: 머리가 좋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를 식히다....

나다: 신문에 나다, 틈이 나다, 몸살 나다, 신이 나다....

학습자가 교사와 다의어 확인 학습을 통해 익힌 어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습득한 어휘를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여러 과제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또한 학습한 어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다의어를 제시하여 주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게 한다.

* 신문을 보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도 신문 볼 시간이 없다.

손을 젖다 : 그는 헤어질 때 다시 만나자는 인사도 없이 그저 손만

저을 뿐이었다.

택시를 타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니 택시 타기가 힘들 거예요.

머리가 좋다: 에디슨은 머리가 좋은 과학자가 아니라 노력하는 과학자로 이름이 나 있다.

신문에 나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니, 참으로 신문에 날 일이다.

V.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다의어의 어휘 특징에 따른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이루어진 어휘 학습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이러한 과거의 연구를 토대로 의미관계에 따른 어휘의 연관성에 의한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이 어휘 학습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다의어를 통한 어휘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어휘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이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문법에 관해서는 매 과마다 연습이나 과제활동이 많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어휘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의 설명과 연습활동만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다의어를 통한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어휘를 학습시킨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어휘 지식이 확장되며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어 교실 밖에서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모델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논문은 다의어라는 의미관계를 이용한 고급단계 어휘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의어의 학습 모형 및 평가 문제는 모두 제시하지 못했음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런 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과제로 두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강가혜(2017), 어휘 선택 과정의 메타적 인식을 활용한 어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강현화(2001), “다의어의 어휘 제시 방안 연구”, 학술발표요지,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박동호(2001), “한국어 어휘 기술 방법론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성우철(2018), 어휘적 변화의 어휘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유현경 · 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정보를 활용한 어휘교육 방안”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7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재욱(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방법” , 고려대 대학원 석사 논문
- 이지영(2013), 중국 학습자의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어휘 선정 및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 논문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차경미(2020), 국어 어휘 수행전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Hammerly, H.(1982), *Synthesi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 Instruction to linguistics*, Blane, Wash: Second Language Publication
- Henning, G.(1973), *A Research Study in Vocabulary Learning: Literature, Experimentation, and ESL Lessons*, Unpublished MA Thesis in TESL.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Nation, I. S.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inle & Heinle Publishers.
- Nation, I. S. 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UP
- Twaddell, W. F.(1973), *Vocabulary Expansion in the ESOL Classroom*, TESOL Quartely
- <교재>
- 국제교육진흥원(2001), 한국어 읽기, 상급, 국제교육진흥원